

그로테스크 특성이 반영된 예술 분장의 연구

-안면 분장을 중심으로-

김 승 현*

MBC 아카데미 뷰티스쿨 대전 롯데캠퍼스 원장

현대 분장의 양상은 표현의 무제한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미의 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주관적인 개성표현과 미적가치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술 분장의 영역에서도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새롭고 다양한 변화들은 무시무시한 것, 엽기적인 것, 추한 것, 희극적인 것 등으로 대표되는 그로테스크의 개념과 연관 지을 수 있다. 그로테스크는 16세기 초기의 괴이한 장식물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오늘날 심리적인 부조화와 변태적인 예술양식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어온 것으로 소외, 고독, 움츠림, 무감각 등 병적이며 부정적인 단어들로 대변되는 현대인의 생활환경과 고전적인 미의식이나 절대적인 가치가 붕괴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득세하여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현대에 나타나는 분장의 다양성, 전문성, 예술성의 발전을 그로테스크적 표현양식에 의거한 예술 분장의 연구를 통해 재조명 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로 인해 전통적인 디자인 개념에서 벗어나 시대적인 흐름과 다양한 문화의 발전으로 영향을 받은 현대 인간의 내면세계를 폭넓게 인식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보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방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예술 분장의 발전양식과 다양성을 그로테스크적 표현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삶의 질이 높아져가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문화의 질적인 수준이 향상돼가고 있는 현재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분장 표현양식 뿐만 아니라 접해보지 못한 진보된 새로운 표현양식이나 색다른 감동을 느껴보고 싶어 하는 대중심리를 그로테스크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한 예술 분장의 분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선행된 방법으로 제2장에서는 문헌 조사를 통해 ‘그로테스크’에 대한 개념정의와 발생을 살펴보고 그로테스크 예술의 역사를 고찰해 봄으로써 그로테스크가 가지는 예술적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제 3장에서는 예술 분장의 개념과 유형을 분류해 볼 것이며 예술 분장의 작품사진을 분석하여 예술 분장 표현영역의 다양성을 확인해봄으로써 현재 예술 분장의 발전정도를 확인해 볼 것이다. 여러 아티스트들의 작품분석 및 분류작업을 통한 고찰은 실제의 표현

* Corresponding Author: neo90250@hanmail.net

기술의 발전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술 분장이 예술적인 영역 이외에 대중문화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한 것을 직접 확인해 볼 것이다.

제 4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내용인 그로테스크적 특성이 반영된 예술 분장의 표현방법에 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필립 톰슨(Philip Thomson)이 정의한 그로테스크의 특징을 기반으로 그로테스크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예술 분장 작품들을 분류하면서 다음의 여섯 가지 유형들로 구분해 보았다. 첫째 부조화적 이미지, 둘째 비인간적 이미지, 셋째 기계적 이미지, 넷째 왜곡과 과장의 이미지, 다섯째 악마적 이미지, 여섯째 유희적 이미지가 그것이다. 부조화, 웃음과 공포, 극단과 과장, 비 정상성 등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그로테스크의 이미지를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분장의 꽃이라 불리우는 예술 분장의 최상의 아름다움을 그로테스크적으로 접근한 작품들을 분석하면서 예술 분장과 그로테스크 미학의 연관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선행되어 연구되어진 예술 분장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예술 분장을 연구해 봄으로써 예술 분장의 영역이 정형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닌 다양한 주제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제 작품제작을 통하여 이론과 실재를 연결한 결론으로 유추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분장 기술력의 빠른 성장과 더불어 예술 분장의 주제나 표현방법의 다양성을 분석해 봄으로써 새로운 각도의 분장 발전 가능성을 엿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상과 같이 일반적인 인식의 기준 안에 가지고 있는 분장의 영역과 그로테스크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영역의 상반된 개념의 불일치는 그 동안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사회적 변화, 시대적 흐름, 혼란 등을 통해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러한 표출양상은 그로테스크적으로 풀어가며 새로운 영역을 돌출해내는 것을 고찰해봄으로써, 예술 분장에서 그로테스크적 특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것은 예술 분장의 영역이 폭넓게 발전했고 예술 분장의 표현 영역이 무한하며 소재나 주제의 선택이 보편화된 미의 기준에 준해서만 움직임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예술 분장의 발전을 재조명 해봄으로써 분장이 예술을 표현하는데 있어 단순한 도구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양한 방향으로 예술 분장에 관한 발전적인 연구가 지속되길 바란다.